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8호 【루체 제25992호】주제107(2018)년 4월 28일(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민족의 화해 단합과 평화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만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주제107(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 나오시였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특기할 력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판문점은 긴긴세월 분편과 고통, 대결과 적대의 상징으로 력사의 한복판에서 온갖 풍운을 맞고보낸 쓰라린 아픔을 화상한 4월의 봄계절과 더불어 혼날려버리고 분편사상 있어보지 못한 끝없는 환희와 희망의 새 기운으로 태동하고있었다.

오전 9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정부, 군대의 간부들을 인솔하시고 판문각을 나서시어 판문점분리선앞에 이르시였다.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남측지역

을 방문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맞이하기 위하여 문재인대통령이 판문점분리선앞까지 나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반갑게 악수하시고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어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우리측 지역의 판문각과 남측지역의 《자유의 집》을 배경으로 각각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은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우리측 지역에서 다시한번 굳은 악수를 나누시고 판문점 남측지역으로 나가시였다.

북남수뇌분들께서 함께 손잡고 북과 남을 자유롭게 오가시며 금단의 선, 분단의 벽을 순간에 허무는 모습은 우리 민족사에 처음으로 기록되는 감동깊은 화폭으로서 온 세상을 커다란 충격과 열광, 환희와 경탄으로 뒤흔들치게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어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으로 향하시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첫걸음을 의의있게 장식한 수뇌분들을 북과 남의 인사들이 열광적인 박수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문재인대통령이 따듯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남측 어린이들이 향기로운 꽃무늬를 드리였다.

북남수뇌분들께서는 전통의장대의 훈위를 받으며 국군의장대시열장으로 향하시였다.

전통악대가 선두에서 흥겨운 풍악을 울리며 환영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앞광장에는 군악대와 북, 해, 공군의장대, 전통의장대, 전통악대가 정렬해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이 사열대에 오르시자 국군의장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으며 군악대가 환영곡을 연주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군의장대와 전통의장대들 시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으로부터 영접받은 남측인사들을 소개받으시고 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시였다.

문재인대통령이 우리측 간부들과 인사를 하였다.

북과 남의 인사들은 수뇌분들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와 당과 정부의 간부들인 리수용동지, 김영철동지, 리용호동지, 최휘동지, 김여성동지, 리선권동지, 무력기관 간부들인 리명수동지,

